



청년농업인 판로개척 '맞선' 2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업인 판로개척 및 기술성장지원을 위한 농촌진흥청과 한국MD협회의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저변·외연 확장

경진원, 27일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창업팀 모집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2022년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을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해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도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315팀의 지역 내 사회적기업가 발굴·양성에 151팀을(예비)사

회적기업으로 진입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창업팀 12개를 선정한 예정이며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소셜미션 정립 및 사업모델링 발전을 위한 심화 멘토링, 마케팅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참여, 사업화 자금 700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통해 사회적기업가로서 연차록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현웅 원장은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에 힘을 쏟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저변과 외연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과 관련한 세부내용과 지원방법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bba.kr)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다. /김윤상기자

여름재해 사전예방 총력

농식품부, 6월 하순까지 취약시설 사전점검 본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일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비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명피해(46명)와 농업피해가 발생(복구소요액 4,753억 원)했고, 2021년에는 태풍(오미이스, 찬투),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피해(복구소요액 679억 원)가 발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장마철부터는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상황관리, 기관 간 공조 체계 유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등 본격적인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추어 예정이다. 우선 6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점검에서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보완한다. 수리시설은 디(D) 등급 저수지 553개소, 전체 배수장 1,303개소, 상습침

수지역 배수로 2,506km를 대상으로 시설상태(균열·누수·변형), 수방자재·양수기 확보, 감시인력배치, 단전 대응계획(비상발전기, 이중선로 확보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원예시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여름철 피해를 본 시설 4,662개소(과수원 982, 시설하우스 3,680)를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정비 등 피해예방 요령 이행여부 집중 점검 및 일정규모(1.5ha) 이상 9,670농가도 추가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시설은 재해 취약시설 1,868개소를 대상으로 매주 실시하는 축산환경 소독의 날과 병행하여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여부, 송풍팬, 냉방설비 여부, 전기소독 여부 등을 점검·보완한다. 이 밖에, 과수화상병 매몰지 15,027개소, 가축매몰지 88개소 등에 대하여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매몰지 주변 물 고임, 시설물 고장, 배수로 정비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보완하고, 산사태취약지역(2만 6,923개소) 중 점검을 완료한 2만 2,880개 외의 잔여 취약지역 4,043개소를 대상으로 낙석·붕괴·침식 여부, 사방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점검한다. 특히, 경북·강원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 응급복구를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2,656개

소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해 보완 조치한다. 여름철 재해대응 강화기간인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조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 복구 대응 등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예보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전파 등을 추진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지자체(농업기술원)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력, 응급복구 및 피해복구를 신속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복구인력을 지원하며, 농촌진흥청, 지자체의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 기술을 지도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경영자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홍보를 대상으로 여름 재해대책 보도자료 배포, 기상특보 발령 시 자라뉴스 텔레비전 송출, 안내 문자 발송 등 피해우려 농가대상 예방요령도 홍보한다. 김현수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까지 재해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오월애(愛) 정기예금 특판

전은, 가정의 달 맞아 판매한도 총 2000억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오월애(愛)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한다. 정기 예금 가입금액은 1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이며, 12개월과 18개월 중 기간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대 연 2.60%(우대금리 연 1.20%포함)로 고시 금리에 기본 우대금리 12개월 연 0.90%, 18개월 연 1.00%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예금 신규 익월부터 수시입출금 계좌의 6개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10% 예금 신규 익월부터 수시입출금 계좌의 6개월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20%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총 판매 한도는 2,000억원으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특판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국민 안심 급식현장 조성

aT, 급식관리단 위촉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4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관리를 위한 급식관리단 및 국민참여점검단 위촉식을 가졌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위촉식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위한 급식관리단과 학부모 점검단 그리고 학교급식 안전지킴이 등 총 79명을 위촉했다. 이 중 급식관리단은 식재료 퇴적온도 등 식품위생인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대상 확대에 발맞춰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33명으로 확대했다. 공사는 이번 위촉식에서 급식 안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식품영양학과 대학을 15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안전지킴이를 새롭게 출범했다. 학교급식 안전지킴이는 학부모 점검단과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향후 학교급식을 책임질 미래 영양사로서의 성장도 기대한다. 한편 공사는 전국 초중고의 80%가 사용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aT)이 최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으로 신규 수요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더욱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현장 조성을 위해 식재료 안전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번 행사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전문교육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소개 등 지속 가능한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을 병행했다. 운영배 농수산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안전 급식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 분야의 먹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한전 남전주시, 국제영화제 홍보활동 전개

한국전력 전북본부 남전주시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행사에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배정받아 현장 민원 접수 및 홍보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열린 전주국제영화제는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 4월 28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2,000여명이 참석했다. 남전주시사는 이날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고객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어 고객 밀집장소에서 현장 민원접수 및 홍보용품(말티캡, 물티슈)을 전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찬영 남전주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객과의 접촉이 어려워졌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사가 되자"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교육부는 국고에서 지원되며 고용보증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5월엔 모두 함께 맘껏 걸어보자'

전북농협,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과 이달 말까지 진행 탄소중립 동참 등 위해 마련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걸음기부 캠페인 '5월엔 모두 함께 마음껏 걸어 봄!'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 친환경 동참과 기부문화 확산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캠페인 종료 후 목표 걸음 5,000만보 달성 시 기념 나눔 행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첫걸음 행사로 전북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지리산 허브밸리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가졌다. 플로깅은 이삭줍기를 의미하는 스웨덴어 '플로카 업(Flu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친 말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이날 전북인삼농협(조합장



전북농협은 범농협 계열사 임직원과 함께하는 걸음기부 캠페인 '5월엔 모두 함께 마음껏 걸어 봄!'을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1일 지리산 허브밸리 일대에서 열린 첫걸음 행사.

신인성)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전북인삼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비례공 축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삼제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첫걸음 행사를 시작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자"며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물론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